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월 12일 뉴튼 포포인트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시민협회 주최 영리더십심포지움(YLS)에 참가한 연사들과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한인 2세 리더들, "자신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

한인 2세들이 전하는 정체성 형성, 자신의 가치 자신이 결정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 2세들의 정체성과 삶의 이야기 경험 나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뉴 잉글랜드 시민협회가 주최한 영리더십심포지움(YLS)에서 이마리 패리스 제프리스 킹 재단 대표, 세라김 MA 재무부 총괄법률고문

, 샘현 보스톤시 연방정부관련업무 디렉터는 정체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올해 YLS는 11월 12일 뉴튼소재 포포인트

웨라톤호텔(Four Points By Sheraton)에서 자아정체성형성(Building Your Own Identity)을 주제로 개최됐다.

첫번째 연사인 제프리스 킹재단 대표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로서 자신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틴루터킹 기념동상 건립을 통해 정체성을 이야기 했다. >>4면으로 계속

구글, 본지 포함 세계 50여개 국 450개 언론사 선정 지원

한국계 언론은 보스톤코리아와 미주 중앙일보 2개사만 포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본지(보스톤코리아)가 미국 빅테크업체 구글(Google)이 전 세계 50명 미만의 중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뉴스이쿼티 펀드(News Equity Fund) 수혜자로 선정됐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52개국에서 총 450여개 언론사를 최종 선정해 이를 15일 공식 발표했다. 구글은 사내 언론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심사단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제 3의 기관을 통해 선정자들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50개 언론사 중에 한인 언론사 및 한국 언론사 중에서 보스톤코리아(Boston Korea)사와 미주중앙일보(The Korea Daily)사만 최종 수혜자에 이름을 올렸다. >>2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 12월 10일 토요일

가수 김진씨 사회, 41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마지막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41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우번 소

재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강변가요제 출신의 가수이자 기획사 대표인 김진씨의 사회로 진행

되는 이번 송년의 밤 행사에는 한국 왕복비행기표 2장, 김치 냉장고, 대형 TV 3대, 쿠쿠 전기밥솥 4개 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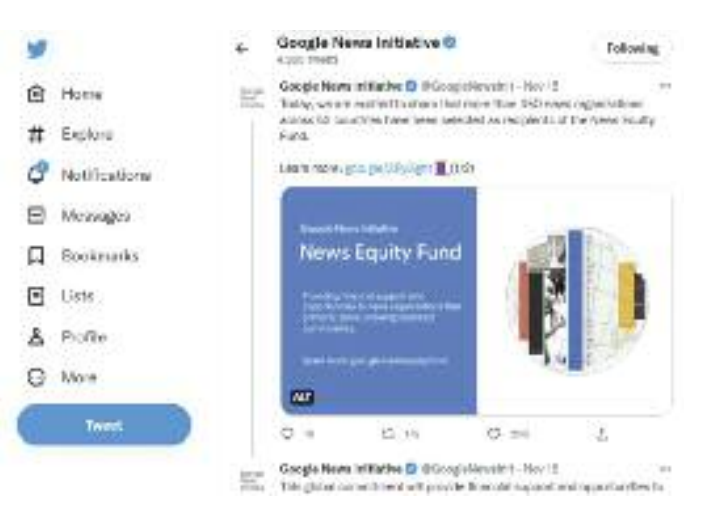
경품 이외에도 한인회는 참가자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각종 게임과 케이팝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송년의 밤 입장권은 개인당 \$100이다.

한인회는 “이제 동포여러분께, 한동포 한마당의 단합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어느덧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함께하여 즐거웠던 시간들, 새롭게 만나 뵈서 반가웠던 얼굴들, 끊임없이 찾아오고 베푸시는 후원의 손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며 한인회 마지막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및 입장권 구입, 후원 등의 문의와 상담은 978-807-1622, 978-461-2424 그리고 매사추세츠 서부지역의 경우 646-220-3314로 연락하면 된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 밤
일시: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11시

장소: 크라운 플라자 우번 그랜드 볼룸



구글, 본지 포함 세계 50여개국 450개 언론사 선정 지원

구글은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oogle News Initiative)를 통해 각 지역 언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론사들에게 뉴스룸을 비롯하여 각종 재정정보, 각종 소비자 정보 활용법, 디지털 신문발행 성공 사례 등을 웨비나를 통해 교육해오고 있다. 이번 뉴스이퀴티 펀드는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스톤코리아의 장명술 대표는 “구글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뉴스이퀴티 펀드의 수혜자로 선정돼서 기쁘다”고 말하고 “이번 펀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웹사이트 개편과 보스톤코리아의 새로운 콘텐츠 확보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스톤코리아는 현재 새로운 웹사이트 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독자들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글은 뉴스이퀴티 펀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독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중소형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확보를 도와 본래적 저널리즘 기능을 지원하며 다양한 뉴스환경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재미과기협, 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와 열린 대화

언어적 강점과 인문학적 소양이 수학연구에 도움 청소년 시절 시에 몰두,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지난 11월 9일 올해 필즈상을 수여한 허준이 (June Huh)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온라인 줌미팅으로 마련된 허준이 교수와의 대화의 시간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과학기술자들을 포함한 3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며 허교수와 대화했다.

미팅은 시카고대 물리학 석좌 교수인 김영기 KSEA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허준이 교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는 연산 등 셀 수 있는 것을 다루는 이산수학(discrete math) 과 연속체 수학(continuous math) 간에 다리를 놓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안된다는 허교수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넓은 공간에 나가서 걷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고 말했다

허교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자칫 강박관념이 되어 더 많은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면서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고 넓은 세상을 바라볼 것을 조언했다.

청소년 시절 수학보다는 시에 몰두해서 기형도 시인을 좋아했고 고교를 중퇴해 검정고시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허교수는 학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허교수는 “누구나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 한다” 며 자기 자신에 대해 제한을 두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친구처럼 소통하는 부모님들 덕에 힘들었던 청소년기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공부를 했다는 그는 두 어린 자녀의 양육에도 특별한 전략이 없이 부모로서 ‘좋은 사람’ 이 되려고 노력하고 친구처럼 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교수는 고교생들에게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으로 시인



11월 9일 KSEA 김영기 회장의 사회로 마련된 허준이 교수와의 온라인 소통 행사



David Whyte 의 “Consolations: The Solace, Nourishment and Underlying Meaning of Everyday Words” 를 추천했으며 자신의 언어적 강점과 인문학적 소양이 수학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허준이 교수는 올해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Fields Medal) 과 ‘천재들의 상’ 이라고 불리는 맥아더상(MacArthur Fellowship)을 수상했다.

KSEA 는 허준이 교수와의 미팅 동영상상을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며, 12월 15일에는 명사와의 만남 시리즈 두번째로 2022년 호암상 수상자인 키스 정(한국명 정

재기) 하버드대 의대 교수와의 온라인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1971년 워싱턴DC에서 한인 유학생 69명으로 창설된 KSEA 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인 1세뿐 아니라, 1.5세, 2세 한인 과학자기술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해 세대 폭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와 다양한 R&D 사업, 차세대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발전과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 신청 문의 : itm@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이화여대 동창회 연말파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이화여대 동창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별링턴 소재 H마트 인근 세븐스프링스 클럽하우스 (Village at Seven Spring Clubhouse)에서 개최한다.

이대 동창회는 “지난 시간을 감사하며, 선후배의 정을 나누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는 레크레이션과 푸짐한 상품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가득한 즐거운 연말파티에 동창님들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고 초대장을 보냈다.

올해 처음 참석하는 이대 동문은 참석비가 무료다. 문의는 진지영 회장(603-674-3415)에게 할 수 있다.

일시: 12/3/22 토요일 10:30AM-2:30 PM

장소: The Village at Seven Spring Clubhouse

1 Seven Springs Ln, Burlington MA 01803

신청 연락: 이대보스톤 동창회 전화: 603)674-3415 이메일: Stel-lalee0429@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한인 2세 리더들, "자신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

▶▶1면에 이어서

그는 역사의 도시 보스톤에서 건립된 동상들은 "뛰어난 지도자들, 전쟁영웅, 그리고 백인들"이며 "결국 동상을 통해 어떤 사람의 동상의 정체성이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지를 상징한다"고 우리와 닮은 사람들의 동상 건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제프리스 대표는 앞으로 건립된 킹 기념탑에는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물론 1950-70년대까지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69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5명이 아시안, 2명의 미국 원주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라킴 재무부 차관은 이민가정의 장녀로 센트럴 매사추세츠에서 유일한 아시안으로서 자라나며 잘 교류하지 못하고 늘 어색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이 백인사회에 맞춰 편입하는(fit-in) 데 맞춰져 있었음을 고백했다.

세라킴 차관은 정체성을 형성할 때 3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첫째 자신의 지원군을 모아야, 둘째 멘토와 동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언제나 자신의 경험과 성공, 심지어 실패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며 "멘토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간과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동료가 돼라"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현혹되거나 모방하지 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라고 말했다.

샘현 보스톤시 연방정부관련업무 디렉터는 키워드로 왜(Why), 목적(Purpose), 그리고 가치(Worth)를 제시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생김새, 직업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많은 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가 되는 과정이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권하는데 이런 점을 2세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샘현 디렉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알아야 하며 미셀



영리더십심포지움에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강연을 진행한 이마리 패리스 제프리스, 세라킴, 샘현(좌로부터 직함생략)

유시장의 이야기처럼 "작은 것들을 이뤄 감으로써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작은 일에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완벽하려고 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끝까지 함께한 유기준 총영사는 강연이 끝난 후 "3명 강사들의 강연도 좋았고 심지어 질의 응답까지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유 총영사는 또 강연에 앞선 축사를 통해 심포지움을 준비한 시민협회 양미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3명 연사들이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이 자리의 젊은 재미한인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향후 동인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올해 YLS의 모두 발언에서 양미아 시민협회장은 "정체성은 소속감과 자존감, 웰빙, 자존감 그리고 삶의 목적을 확립해 주며 삶의 어려움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하며 올해 주제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자녀와 함께 한 학부모는 "강사들이 아주 쉽게 귀에 잘 들어 오도록 이야기해서 좋았다. 감사

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고 말을 전했고, "YLS 행사가 있는 것을 보스톤코리아를 통해 처음 알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한 한인인 미국 회사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강연을 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민협회 영리더십심포지움(YLS)은 한인 2세들이 각계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자기만의 극복방법, 삶의 깨달음 등을 차세대들과 한인들에게 전하는 심포지움이다. 꼭 2세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editor@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p>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p> <p>\$24⁹⁹</p>	<p>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p> <p>\$34⁹⁹</p>	<p>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p> <p>\$39⁹⁹</p>
---	--	---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전상품 1년 약정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티V / KTV / 우리방송

그레이트 보스턴 부동산 거래 급감, 2011년 이래 최저

모기지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매매 제동 이자율 오르고 집값도 올라 거래 한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약재가 겹친 2022년 가을 주택시장은 구매자에게도 판매자에게도 어려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레이트보스턴부동산중개인협회(GBAR)는 10월 단독주택 판매수가 2011년 이래 최저치인 886건으로 16.3%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5개월 연속 거래 감소다. 콘도 세 일은 742건이 거래돼 22%가 떨어졌다.

이번 판매 둔화는 가을이면 식어 가는 순환적인 부동산 거래 감소와 모기지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우려 등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더해져 예년의 가을보다 훨씬 큰 폭의 둔화 양상을 보였다.

델빈 바이에이라 그레이트보스턴 부동산중개인협회(GBAR) 회장은 “올해는 모기지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중간선거, 매물 부족 등이

가을 주택판매 감소를 더욱 부추겼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매자 수도 적었고 구매력도 동시에 떨어졌다. 이것이 최근 몇 달동안 부동산 시장을 차갑게 가라앉게 만들었다” 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여름보다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지만 지난 10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747,000로 역대 10월 주택 가격 중 최고이며 지난해 10월 보다 6.7%나 높았다.

주택가격은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마저 올라가는 상황이니 구매자가 적은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미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7.08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금액의 주택을 구매했던 구매자에 비해 한달에 약 \$1500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은 집 소유

주들의 선뜻 집을 매물로 내놓기를 꺼리게 만들었으며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 줄어들었다.

바이에이라 회장은 “시장은 이제 과거와 달라졌다. 호가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던 비딩위는 사라졌고 셀러는 좋은 조건을 선택했던 시대는 갔다. 대신 집은 잘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가격도 적절해야 한다. 매매를 서두르는 경우 집값을 낮추거나 다른 양보를 해야 한다. 또한 판매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게 된다” 고 밝혔다.

한편, 매사추세츠 전체 부동산 거래를 집계하는 워렌그룹에 따르면 10월 단독주택 판매량은 21.5%, 콘도는 17.9% 각각 하락했다. 매사추세츠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10월보다 4% 오른 \$520,000이었고, 콘도 중간 가격은 12.7% 오른 \$479,000이었다. 워렌 그룹에 따르면 판매량 감소는 지난 2012년 10월 이래 최저였다.

hsb@bostonkorea.com



김우승 한양대 총장, 보스턴한양대 동문 방문 산학협력 논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

부 = 김우승 한양대 총장이 13일 일요일 보스턴을 방문 한양대 동문(회장 김영환)들과 만찬 모임을 갖고 보스턴의 바이오 산업을 둘러보며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밤 개최된 뉴잉글랜드 한양대 동문 초청 만찬에는 40여명의 지역 한양대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환영의 시간을 가

졌다.

김우승 총장은 하버드, MIT, 유메스 등에서 연구, 공부하고 있는 공대 동문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하버드 맥린 병원 김광수 박사를 방문해 협력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스턴 지사(KHIDI Boston)를 방문해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우익 단체, 매사추세츠 학교의 인종 및 성 교육에 개입

애틀란타 총격 유색인종 포럼 두고 백인학생 차별했다 소송 교육수호학부모(PDE) 각 학교의 인종, 성소수자교육 감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교육수호학부모(Parents Defending Education, PDE)란 우익단체가 매사추세츠 주요 학교를 상대로 인종 및 성 교육 등에서 백인은 차별하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수호학부모 (Parents Defending Education, PDE)는 뉴튼노스하이 스쿨을 상대로 연방 인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연극공연이 유색인종만 오디션에 참여토록 제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웰슬리공립 학교가 애틀란타 총격 참사 이후 아시안 및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이 대량총격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한 것이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포럼을 주관한 담당교사가 쓴 편지가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주내 학교에서 인종, 성지향 또는 성별과 관련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교육사례가 43건이나 된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웰슬리공립학교 데이비드 러시어 교육감은 “이런 사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단체는 교육감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수호학부모(PDE)의 추종자들은 진보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교육체계에 이 단체가 핵심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PDE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제니퍼 맥윌리엄스는 “오랫동안 교육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기에 이 단체의 활동은 좋은 측면이 있다. 학교는 도덕, 가치, 자세 세계관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미국 전역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인종별로 나누거나 부적절하게 성과 성별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 교육은 반드시 “학문과 사실”에 기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민족 학습은 “학생들을 억압자와 피억압 그룹”으로 나누며 백인 학생들에게 “죄의식과 수치”를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DE에는 13명의 스태프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수적인 아젠다를 계속 홍보하고 있다. 이 스태프중에 과거 극우 보수 그룹 코치 브라더스 소속단체 (스피치 퍼스트)의 회장을 맡고 있는 니콜 릴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명직을 맡았던 에이미 바이애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들은 미국내 문화전쟁의 최전선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PDE가 전국적으로 조직된 아젠다를 실

현시키려 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국 전역에서 보수의 가치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보수 학부모 단체인 Moms for Liberty, No Left Turn in Education 등을 산하단체로 등록시키고 있다.

하버드 교육 대학원의 메이라 레빈슨 교수는 “소셜 미디어로 인해 모든 정치적, 당파적인 그룹들의 전국적으로 조직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익쪽이 좌익쪽보다는 의회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언어들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마스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교사들은 이 그룹이 모든 곳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브루클라인 학교의 교사들이 플로리다의 게이관련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밀튼 공립학교에서 지난 6월 미국내 첫 공개 게이 정치인인 허비 밀크에 대해서 교육하고 LGBTQ의 단어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웰슬리 교사협회 카일 게코피 회장은 “만약 계속 이와 같은 교육환경,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압력이 지속된다면 누가 교사를 하겠는가”하고 묻고 “이는 많은 교사들에게 자시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10월 4일 PDE는 뉴튼노스하이 스쿨을 상대로 연방 인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튼학교가 1964년 인권법과 수정헌법 14조 균등보호조항

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에 근거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조항이 백인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학생들 주도의 작품 “분실물발견: 유색인종에 의한 유색인종 이야기”가 백인들의 오디션을 금했다는 점이다. 이 쇼는 유색인종에게 연극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게 기획됐다. 뉴튼 공립학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많은 주내 교사들은 이번 뉴튼 케이스가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하고 있다. 브라이언 피츠제럴드 플리머스카운티교육협회 회장은 PDE는 지난 수십년간 성교육 축소를 위해 싸우며 이 주제에 대해 교육하기 힘들게 했던 운동가들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PDE는 2021년 10월 웰슬리 학군을 소송했다. 학생지원그룹이 백인 학생들을 “교사 및 동료학생들과 상호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종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조직은 5명의 웰슬리 학부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내용은 2021년 애틀란타 스과 총격 참사 이후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백인을 차별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한 교사의 이메일 초대장이었다. “이 대화는 아시안 및 아시안어메리칸 그리고 유색인종을 위한 안전한 대화공간이며 백



인 학생들을 위한 대화공간이 아니다. 백인학생들로서 최근 사건에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또는 지도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왜 백인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나에게 질문하라”라는 내용이었다.

러시어 교육감은 이 교사의 의도는 좋았지만 단어 사용과 오픈 대상에 대한 “과도한 확정”이었다고 말하고 당시 대화는 모든 인종에게 열려 있었으며 아시안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했던 것을 지적했다.

교육감은 이로 인해 PDE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대신 미국 각지에서 아주 저열하고 나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타협을 도출했으며 이 단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학군은 모든 학교가 지원하는 모임은 모든 인종에게 개방하도록 명확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PDE는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할 경우 익명으로 이를 신고해달라고 말하고 당부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교사 훈련 슬라이드, 숙제 스크린샷, 이메일 등이 제시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바이오랩 건설붐 찬서리

향후 건설 예정 실험실 80% 축소 또는 멈춤 이자율 인상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주요 원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번창하는 바이오산업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작됐던 바이오 실험실인 바이오랩 건축 붐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

부동산 회사 뉴마크(Newmark)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약 40천만스퀘어피트의 바이오랩 건축 분 중 약 80%에 달하는 3천2백만 스퀘어피트의 건축이 일단 멈춤이 됐거나 향후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최근의 어려운 거시경제상황과 이자율 상승, 급등하는 건축비용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보스톤글로벌은 이 같은 랩 건축의 축소가 결코 보스톤의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위상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피스 및 실험실 수요가 감소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기존의 바이오클러스터 디스트릭트인 케임브리지로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스톤의 바이오랩 건축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피크를 이루게 됐다. 특히 많은 벤처캐피탈 자금과 미

국립보건원의 연구비 지원이 붓물을 이루면서 팬데믹 이후 보스톤 생명과학 랩공간의 수요는 3배가 늘었다. 또한 오피스빌딩 건축과 호텔신축 등에 관심이 떨어진 국제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처로 바이오랩이 떠오르자 이곳에 자금을 집중시켰다.

수요와 공급이 붐을 촉발시키면서 보스톤 지역 인근에는 여기저기 바이오랩 건축이 시작됐다. 뉴마크에 따르면 그레이터 보스톤의 랩공간의 공급량은 약 3천1백만 스퀘어피트로 지난 10년에 비해 약 두배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가 급속히 위축됐다. 지난해 말 랩공간 수요는 약 6백만 스퀘어피트였으며 현재는 팬데믹 전의 수요와 유사한 2백만 스퀘어피트로 축소됐다.

즉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향후 랩공간을 찾는데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었으며 더 좋은 조건의 랩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굳이 과거처럼 기존의 건물을 랩 공간으로 전환한 이런 랩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이자율 인상, 건축비 인상 그리고 부동산의 위치와 연관된 비용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게 됐다. 일부는 랩공간 건축을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비록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여전히 뜨겁다. 건축회사 알렉산드리아 조엘 마커스 대표는 “현재 케임브리지에서의 건축은 서머빌에서의 건축과 다르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바이오랩 건축은 조정을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및 연구 측면에서도 잠재성이 풍부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켄달 센터는 세계 생명공학의 최고의 위치중의 하나다” 라는 것이다. 바이오랩 건축 붐이 일부 식어가고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켄달스퀘어에서는 대형 바이오 건축이 진행중에 있다. 모더나 본부 건물 신축,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개발센터 및 악셀리온 제약사 본부, 다케다 16층 연구개발센터. 이들 프로젝트는 대형 개발사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혐의자인 26세의 켄지 거주 크리스티안 린치

켄지서 60세 아시안여성 납치 성폭행 당해

보스톤글로벌 칼럼니스트 “혐오범죄로 기소하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60세의 중국계 아시안 여성이 토요일 이른 아침 월라스턴 전철역에서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납치 당해 수시간 동안 감금,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혐의자인 26세의 켄지 거주 크리스티안 린치는 납치,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그의 혐의에는 아시안 혐오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판사는 보석 없이 구류를 명했다.

노퍽 지검에 따르면 피해자는 토요일 이른 아침 전철역으로 향하던 중 거리에서 혐의자에게 납치됐으며 이후 그는 피해자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차에 태운 후 인근 자신의 거주지에 납치해 폭행과 성폭행을 가했다.

범인은 이날 밤 피해자를 차에

실어 브락톤 소재 웨스트케이트 몰 주차장에 내려두고 떠났다. 피해자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신고로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MBTA 경찰에 따르면 범인 린치는 같은 날 피해자를 납치하기 10분전 또 다른 아시안 여성을 납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를 납치하게 됐다.

노퍽 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만약 혐오범죄를 비롯해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감시카메라를 분석한 MBTA 경찰 및 켄지경찰은 13일 일요일 린치를 체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린치는 10월 켄지의 산책로인 스쿼 락(Squaw Rock) 인근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도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LOVE THE LORD, LOVE THE LOST



WELCOME

보스톤 주안에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일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5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5
@ Longwood T Station (D Line)

20일 개막,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경기 어떻게 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계 최대의 축구 토너먼트인 피파월드컵(FIFA World Cup)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다. 이번 월드컵에는 국가별로 한국을 비롯한 총 32개 팀이 참가해 세계 최강의 팀을 가리게 된다.

올해 월드컵은 매년 6-7월에 개최했던 것과 달리 11월에 열린다. 이번 연기는 중동지역인 카타르에서 한여름의 땀별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월드컵은 예년에 비해 4월이나 이미 단축됐다. 각팀의 최고 선수들이 각국의 대표팀에 차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프로축구 리그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책이다.

한국팀은 올해 11번째 월드컵에 진출하며 무려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다. 벤투 감독의 지휘아래 안와 골절 부상을 입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간판 선수다. 월드컵 H 조에 속한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와 함께 조별 예선리그를 거치게 된다.

미국팀은 2014년 월드컵 이래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으며 현재 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24세의 크리스티안 풀리시이 이 끌고 있는 어린 팀이다. B조에 속해 있으며 잉글랜드, 웨일스, 그리고 이란과 한조에 속해있다.

월드컵 첫 경기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이다.

한국의 첫 경기는 11월 24일 목요일

일 팡스기빙데이인 오전 8시 우루과이와 일전이다. 이어 11월 28일 월요일에는 오전 8시 가나와 대결한다. 이어 예선 마지막 경기 상대는 포르투갈이며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결한다.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8시 한국 대 우루과이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 한국 대 가나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한국 대 포르투갈

미국의 첫 경기는 11월 21일 오후 2시 웨일스와 치른다.

Game 1: USA vs. Wales, Monday, Nov. 21 at 2 p.m. ET (11 a.m. PT) on Fox and Telemundo/Peacock

Game 2: England vs. USA, Friday, Nov. 25 at 2 p.m. ET (11 a.m. PT) on Fox and Telemundo/Peacock

Game 3: Iran vs. USA, Tuesday, Nov. 29 at 2 p.m. ET (11 a.m. PT) on Fox and Telemundo/Peacock

월드컵 방영 채널

팍스(Fox)는 미국내에서 영어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NBC의 텔레문도는 스페인어 방송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어로는 팍스와 FS1에서 스페인어로는 텔레문도와 NBC의 프리미엄 스트리밍인 피콕(Peacock)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제공한다.

케이블이 있는 경우 한국전을 시 간에 맞춰 볼 수 있으나 공중파로는

한국전을 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미국전은 팍스티비가 공중파로 방송한다.

따라서 한국전을 무료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경우는 Fox가 중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만약 라이브가 아니고 게임 종료 후에 게임을 보고 싶은 경우 Tubi 티비에 가입해 볼 수 있다. 다만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무료로 보는 대가라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크레딧카드나 유료가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축구를 좋아하는 한인들이라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단 스트리밍 서비스가 각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팍스티비 또는 FS1을 방영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VPN을 이용해 아프리카 TV를 접속해 보는 방법도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종류

피콕 프리미엄(Peacock Premium): \$5

월드컵 전경기 중계(단 스페인어 해설) 월드컵을 가장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스페인어 해설이란 점이 단점.

슬링티브 블루(Sling TV Blue): \$40
슬링의 \$40 블루 패키지에 FS1이 들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이 패키지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없는 곳 이 더 많음

비드고(Vidgo): \$60
비드고는 Fox and FS1을 모두

월드컵 경기 일정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8시 한국 대 우루과이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 한국 대 가나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한국 대 포르투갈



볼 수 있다.

유튜브 TV(YouTube TV): \$65

유튜브 티비는 가장 채널이 많고 팍스와 FS1 그리고 텔레문도까지 볼 수 있다. 프로 풋볼도 어느 경기나 볼 수 있으므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인들의 경우 선택하면 좋은 스트리밍 티비다.

홀루 라이브(Hulu with Live TV): \$70

약간 비싸지만 팍스, FS1 그리고 텔레문도를 모두 볼 수 있다.

디렉티비 스트림(DirectV Stream): \$70

위에서 제공하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료 시험을 허용하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유튜브는 3달간 \$55에 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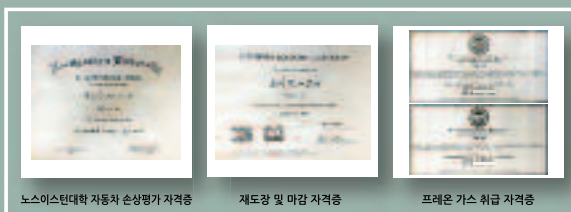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노인 및 장애인 주택 대기자 명단 신청

Athol & Orange 주택당국은 노인/장애인(최소 60세 또는 장애인) 가족 주택(1-4 베드룸) 대기자 명단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mass.gov/champ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www.atholorangehousing.com 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 또는 직접 수령하거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thol & Orange 주택당국은 차별하지 않으며 평등한 주택기회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편의 요청 양식은 요청시 제공됩니다.

소득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55,950	\$63,950	\$71,950	\$79,900	\$86,300	\$92,700	\$99,100	\$105,500

ATHOL-ORANGE HOUSING AUTHORITY
21 Morton Meadows Athol, MA 01331
전화: 978.249.4848, 팩스: 978.249.9604

허리통증 없이 안전하게 코어운동 하는법!

최근 출산한 여성회원들을 포함해 손목과 허리가 약한 회원들로부터 플랭크나 손목에 무리가 되는 코어운동을 따라하기 힘들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래서 최근 제 한국어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에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되지 않는 복근 코어 운동들로 구성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새로운 복근 영상으로 제작해봤어요. 초반의 워밍업과 운동 후 후반의 쿨다운 동작을 빼면 10분도 안되는 운동이니 영상을 참고해 꼭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빼기 힘든 아랫배 뱃살감량은 물론 코어 즉 속근이 단단해져 허리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보트 포즈 (Boat Pose) - 코어 강화

1단계 다리를 앞에 두고 앉아 허벅지 뒤를 잡고 다리를 바닥에서 떼어줍니다.
2단계 허리나 어깨가 구부정하지 않게 아래 허리부터 꼳꼳이 펴고 두 엉덩이에 중심을 실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3단계 균형이 잘 잡힌다면 허벅지를 잡은 손을 떼어 앞으로 나란히 올리셔도 좋습니다.
4단계 두 다리는 90도 정도 구부리거나 유연성이 하락한다면 완전히 펴도 좋습니다.
TIP! 허벅지를 잡아도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두 손을 등뒤 바닥에 내려놓고 버티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2. 시이드 크런치 (Seated Crunch) - 뱃살 감량

1단계 두 손을 등 뒤 바닥에 내려놓고 양의 보트 자세처럼 바닥에서 발을 떼어줍니다.
2단계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시에 두발을 앞으로 쪽 뻗어줍니다.
3단계 호흡을 내시면서 뺏던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4단계 들숨에 다시 다리를 뻗으며 두 동작을 일정한 속도로 반복합니다.
TIP! 운동 중간에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면 과감히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3. 숄더 & 사이드 스트레칭 (Shoulder & Side Stretching) - 영상 속 모든 코어운동이 끝난 후 긴장했던 목과 어깨를 풀어주며 쿨다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1단계 한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머리뒤로 끌어당겨줍니다.

2단계 옆구리와 팔, 어깨의 스트레칭을 느끼며 호흡해주세요

3단계 좀더 깊게 자극을 느끼고 싶다면 두 손을 깎지껴서 밑의 손으로 위의 손을 좀더 밑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4단계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3-5호흡 머물러줍니다.

TIP! 목의 긴장감을 풀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 긴호흡으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남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합류년도 불지런 교이년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교정도 받고 싶다면?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들 진행하고 있어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로 본인 아계번호 주소의 협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폴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인물 사진에 숨겨진 메시지를 아시나요?

사진 전문가들, 사진에 찍힌 자세로 여러가지 판독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사진에 찍은 사람들은 독특한 바디 랭귀지를 전한다. 패럿프린트(Parrot Print)의 사진 전문가들은 사진을 보면 사람의 기분과 함께 촬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70에서 90%의 커뮤니케이션이 비언어로 이뤄진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 사진에 나와있는 자세, 제스처, 그리고 거리 등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팔을 두르고 있다

든지 머리를 가슴에 기대는 등의 제스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많은 것을 이야기 해준다. 사진을 들여다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이 사람이 편하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와 같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술을 꼭 닫고 있다거나 나쁜 자세 등은 불필요하게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

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사진에 남기는 신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 지식을 이용해 향후 사진을 찍을 때 이를 이용해 올바른 포즈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진을 찍을 때 의미하는 바디랭귀지 요소다.

- 1. 나쁜 자세(Bad posture)**
나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가슴을 나오게 하고 어깨를 쭉 펴서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2. 머리 기울이기(Head tilt)**
사진에서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기울인다면 이는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친근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 3. 꼭 다문 입술(Tight lips)**
사진에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경우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남자들은 입을 꼭 다물어야 한다고 과거에 교육 받기도 했다) 웃음이 없는 사진의 얼굴은 평상시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슴에 머리 기대기(Leaning head on chest)

이는 주로 커플에게서 많이 발견하는 모습이다. 상대방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것은 상대방에게 안전하다는 느낌과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는 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5. 다른 사람 어깨에 팔을 두르는 것(Arm over someone's shoulder)

다른 사람에게 팔을 두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며 보스적인 기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열려있는 자세(Open body language)

다리를 쭉 펴고 팔을 길게 뻗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바디랭귀지가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것은 편안하고 자신감을 표현한다. 따라서 한쪽에 왜소하게 앉아있는 것은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7. 모방하기(Mirroring)
서로간의 바디랭귀지를 모방하는 것은 서로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 **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연준 인사 "경기후퇴 없이 물가안정 어려워...고통 불가피"

"금리 결정은 금융시장안정 아닌 물가에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기대로 자산시장이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가 경기후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시 금융시장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을 언급하며 "일정부분 실질적인(경기) 둔화 없이 어떻게 계속 현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연준 목표인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기 위해) 경기 수축까지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열된 고용시장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경기후퇴 없이 물가를 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심각한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그동안 정책효과 상의 시차를 이유로 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을 펴왔던 조지 총재는 비판론을 취했다.

그는 "(연착륙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 나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연준에서 근무한 40년 동안 이런(통화)긴축 시기에 고통스러운 결과

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올해 3월부터 이번 달까지 0.2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4.0%로 끌어올렸고,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되 인상은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것과 관련, 주거비 등 금리에 민감한 상품·서비스 물가가 진정되는 것은 좋은 첫 걸음이라면서도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한 만큼 경기침체 없이는 물가를 잡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지 총재는 미국 가계의 저축 사정이 좋은 만큼 경기 둔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등 속도를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에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1970~1980년대에 물가가 잠시 안정되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났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CPI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해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경제 전망 요약 등을 통해 시장과 분명히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 연설에서 기준금리



뉴욕 증권사 트레이더들의 모습

결정 시 물가안정 등 연준의 경제 목표에 집중해야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상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경기우경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이 이것저것 다 하려다 제대로 하는 건 없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정책 목표를 굽히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복잡한 이슈지만, 핵심적인 금융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최근 유동성 축소와 가상화폐 시장 동요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그만둬서

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을 4.75~5.25%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고 말했다.

bscha@yna.co.kr

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 2천건으로 줄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대량 해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1월 6~1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한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 8천 건)를 하회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

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1만 건으로 1만 3천 건 증가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경기 불확실성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좋은사람들
www.jouney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펠로시 하원의장, 20년만에 당 지도부서 퇴진... "새 세대 시간"

민주 중간선거 패배로 '백의종군'... "미래로 대담하게 나아가야"
바이든 만류에도 당내 세대교체론 · 남편 피습 등 영향 분석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지난 20년간 미국 의회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난다.

펠로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내년 1월 개원하는 다음 의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서지 않고 평의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는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펠로시 의장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년간 맡아온 민주당 하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내놓게 됐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장에 올라 2011년 1월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미 하원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

과 부통령 다음가는 권력 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다.

또 그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뺏긴 뒤인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시 하원에서 원내 대표로 일했고, 2019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지금까지 하원 의장을 맡아왔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 발표로 하원 민주당은 오는 30일 지도부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빼앗겨 차기 하원의장은 공화당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유력시된다.

펠로시 의장의 당 지도부 퇴진 선언은 11·8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것으로, 그의 거취는 중간선거 직후 미 정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그동안 펠로시 의장은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함구해오다, 전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확정됐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일제히 나오자 이날 공식 연설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퇴진을 밝힌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확정되자 성명을 내고 "차기 의회에서 하원 민주당은 빈약한 다수당이 공화당에 대해 강력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퇴진 결정은 당내 세대교체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82세로 고령인 펠로시는 그동안 하원의장직을 무난히 수행해왔다는 평가에도 당내 세대교체 압박을 받아왔다.

또 중간선거 직전에 불거진 남편 폴 펠로시 피습 사건도 그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폴 펠로시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40대 남성에게 둔기 공격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무서웠다"며 피습 사건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지도부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을 전폭적으로 지지

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이 하원 권력을 빼앗겨도 계속 당 지도부에 남아달라고 펠로시 의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펠로시는 백의종군을 택했다.

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엔 하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했다.

honeybee@yna.co.kr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조여가는 검수사에...여 "사필귀정" 야 "야당 탄압"

與 "민주당,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 野 "검찰, 그림 그려놓고 맞춰서 수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과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체의 방탄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실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방탄용 의회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

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 있지 않나"라며 "칼끝이 이제 정말 이대표의목까지 온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베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면서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



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노 의원은 또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jsy@yna.co.kr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구속 심문...수사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정 실장은 그동안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기에 이날 법정 출석길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

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당연구원 부원장, 유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회)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용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러 위 레진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의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 압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 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 신병이 확보되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2vs2@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18th - NOV. 24th, 2022



'Tis the season for holiday feasts! H Mart is your #1 holiday helper! Bring new ideas to your Thanksgiving today! Follow us @hmartofficial H 마트와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준비하세요! H MART MA ID : @hmart_ma

NOTHIN' BUT GOURD VIBES, STEAMED KABOCHA AND NUTS (VEGAN)
Give thanks with a feel-gourd dessert this Thanksgiving!
H 마트와 함께 준비한 견과류 단호박점으로 추수감사절 만찬을 더욱 빛내주세요.

Korean Chestnut 한국산 밤 PRODUCT OF KOREA/LB \$4.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	Cilantro 실란트로 EA \$1.29	Ginger 생강 LB \$1.99
Malanga 말랑가 LB \$1.29	Florida Pomelo 플로리다 포멜로 LB \$1.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12.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Frozen Beef Bones 냉동 사골 LB \$1.49
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	Frozen SEOUL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냉동 서울순대 1.5 LB/PKG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Salted Mackerel 냉동 뱀자반 고등어 2 PCS/1 손 \$6.99	EAT EMOTION Spicy Hot Roasted Dried Filefish Fillet 감동을 먹다 핫갈릭 불쭈포 5.29 OZ \$5.99
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U/3'S - LB \$24.99	TONGTONGBAY Frozen Premium Mixed Fish Cakes 통통배 도미살 모듬어묵 2 LB/PKG \$6.99
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21-25'S/LB \$10.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CJ Hetbahn Cooked White Rice CJ 햇반 \$12.99 7.4 OZ X 12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Cup Noodles 농심 컵 라면 ALL VARIETIES 2.64 OZ X 6 EA/PKG \$6.99
H MART SMART CARD ONLY HORMEL FOODS Spam 호멜푸드 스팸 CLASSIC/LITE 25% LESS SODIUM 12 OZ \$2.99	H MART SMART CARD ONLY DONGSUH Maxim Instant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100 STICKS/PKG \$12.99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Haiga Mai Rice 유기농장 유기농 안심 배아미 15 LB \$37.99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6.99	SAMYANG Buldak Spicy Chicken Flavor Ramen 삼양 불닭볶음면 4.94 OZ X 5 EA/PKG \$4.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7.99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7.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	HAITAI Baked Potato 해태 구운감자 3.8 OZ 2\$4 FOR
CROWN Original Corn Chips 크라운 콘칩 5.22 OZ \$2.99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 FL OZ X 6 EA/PKG \$5.99	KüHAUS Fan 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 DIAL TYPE/16 IN -\$75.99 \$54.99 EA	CHEFWAY Felice Cookware Set 펠리스 탈부착 냄비 세트 MINT/LEMON -\$104.99 \$72.99 SET	HELLO HOME Women's Winter Sleep Pants 헬로홈 여성 겨울 수면바지 FREE SIZE -\$9.99 \$7.99 EA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엄선된 정통 양념 한 톨마다 리얼한 맛입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Xian Dole
617.522.8979
xian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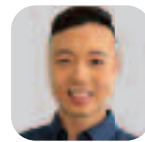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그레이스 정
617.960.6655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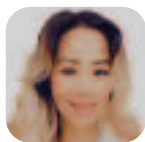
김기태
617.721.8088
k.keetae@bostonpremierrealty.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enjamin Fiorentino
617.775.9583
ben@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NY and GA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NOV. 17TH-24TH, 2022

BUY 1 GET 1 FREE \$6.99



한 팩 가격에 한 팩이 더!

맛 좋고 영양 가득, 신선한 수협 굴 (8oz)

Plump, hearty and so sweet! SUHYUP Frozen oyster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는 한국연립은행의 정부認可 수주율을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안한 광고입니다. - 2021 광고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eongyangdwan Dabulwi Boston Hanin Church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11) 주식시장 50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50년 전(Nov. 15, 1972) 다우 존스 지수가 처음으로 1,000을 돌파했다. 이것은 소리 속도를 추월한 것만큼 중요한 기록이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기(Recession), 오일 파동, 미국 신용등급 하락, 기술주 폭락, 금융 위기, 유럽동맹에서 영국탈퇴, 코로나 팬데믹, 등을 경험하며 다우 지수가 1,000에서 33,000으로 상승한 것이다. 한마디로 놀라운 성장이다. 주식시장 규모가 세월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높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소리에 전 재산을 미국이나 한국에서 무조건 투자한다. 2020년 주식투자자 대박(?) 닳다는 주위 소문을 듣고 너도나도 투자했다.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폭락으로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 잠도 편히 못 잔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것을 경험한 투자자는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린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만이 진정으로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과 결론은 노후자금, 아이들 학자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로 얻는 수익금이 '왜 불로소득인가?' 여기서 받는 수익금은 내가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수익금이다. 내가 투자한 자금은 매우 적지만 이러한 돈이 모여서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기업은 연구 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50년 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단 15%에 불과했다. 현재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약 50%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결과를 인용하면, 미국의 탑 1%가 주식시장에 투자한 규모는 51.8%이다. 그다음 9%가 소유한 주식 규모는 35.4%이다. 미국에서 탑 10%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무려 87.2%로 거의 90%이다. 그다음 미국인 40%가 소유한 주식은 12.1%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50%는 단 0.7%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 절반이 주식에 투자한 돈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다우 지수가 1,000에서 33,000으로 상승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72년부터 2021년 말까지 연평균 11%이

만, 여기서는 10%로 계산해 본다. 수익률 10%란 투자돈이 7.2년마다 두배로 불어난다. 10만 불 투자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주식에 투자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투자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자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회란 생각하며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투자할 자금도 없지만, 조그마한 돈이 있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적인 마음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투자한다고 해도 '대박'을 기대하는 '도박' 처럼 투자한다.

미국은 자본주의에 의한 나라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주식시장이다. 다우 지수나 인덱스 500대 기업의 지수는 주식시장을 대표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미국을 상대로 내기(Betting)하지 말라고 언급' 한다.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 한발 앞서서 항상 회복하고 상

승했다.

주식 투자로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인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 한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모든 투자가 한곳으로 집중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500여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고 이것이 투자 위험성을 적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운영했던 자영업이 실패한다고 해도 꾸준한 투자로 불어난 자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을 창출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높은 수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금은 정직한 수익이다. 다만 투자자가 잘못된 주식 투자를 하기에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투자가 여러 기업에 투자되어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어야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고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8세 풍월주(風月主) 오기공(吳起公(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기(世)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김대문의 직계선조들은 모두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만일 681년에 풍월주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김대문도 풍월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확신해 본다. 타 풍월주들은 부자나 형제가 역임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김대문의 선조들은 540년부터 681년까지 5대에 걸쳐 모두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540년 원화제도를 폐지하고 화랑도를 조직하면서 초대 풍월주로 취임한 위화랑은 김대문의 5대조이다. 그리고 위화랑의 아들이자 김대문의 고조부인 이화랑이 555년 4세 풍월주에 올랐으며, 이화랑의 아들 김보리(김대문의 증조부)는 591년 12세 풍월주에 올랐고, 보리의 아들 김예원(김대문의 조부)은 632년 20세 풍월주로 올랐으며, 예원의 아들 김오기(김대문의 부친)는 662년 28세 풍월주에 올랐다.

141년간 이어져온 32명의 풍월주들 가운데 김대문의 선조들만 적장자(12세 풍월주 보리)는 이화랑의 차자이다. 장자는 원광법사(이)들이 5대를 연속적으로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이는 어느 역사서에도 찾아볼 수 없는 김대문 가문의 족보이다. 화랑세기에는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부모로부터 김대문의 부친 김오기까지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방대하다.

그의 부자나 형제가 풍월주를 지낸 가문은 2세 미진부와 10세 미생 부자(父子)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다.411)

27세 풍월주 김흠돌은 차기 풍월주를 7년간 자신을 도와 화랑도를 이끌었던 부제 흥원에게 물려주지 않고 김오기에게로 넘겨주었다. 흠돌은 늘 '협약한 마음으로 간사한 꾀'를 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그의 바닥에 깔린 성정을 잘 알지 못했고 또한 속아 넘어가기가 일쑤였다. 어쨌든 흠돌은 '흠돌의 계략' 등으로 평가받는 가야파로의 '낭정장악' 계책이 들통나 자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 위로는 태자 범민으로 부터 아래로는 모든 낭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신망을 잃었다. 이에 이모인 문명태후의 지원을 받아 낭정을 재정비하고 싶었지만 '전에 저지른 악행'들이 그에게 각인되어 태자부부와 보룡 등 많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흠돌은 656년부터 662년까지 풍월주를 역임하였는데, 그 무렵인 661년 태자 김법민(부모는 무열왕 김춘추와 문명왕후이다)은 문무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왕후가 된 자의는 보룡의 딸이다. 보룡에게는 장녀 자의, 차녀 운명, 삼녀 야명과 아들 순원이 있었다. 장녀 자의는 문무왕의 비가 되었고

, 차녀 운명은 김오기의 부인이 되었으며, 삼녀 야명은 문무왕의 후궁이 되었다. '꾀 많은' 흠돌은 보룡을 비롯한 왕과 왕비, 김오기와 운명은 자신을 지원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야명과 순원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야명궁이 낳은 아들 인명전군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또한 순원에게는 자신의 딸과 사통하게 하여, 결국 첩으로 들어게 하였다.

411) 풍월주 제도는 540년부터 681년까지 141년간 32명의 풍월주가 화랑도를 이끌었다. 그런데 오직 김대문의 선조들만 초대 위화랑(김대문의 5대조)부터 적장자가 이어서 28세 김오기(김대문의 부친)까지 5대가 풍월주로 화랑도를 이끌었다. 아울러 부자나 형제가 풍월주를 지낸 가문도 다수 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2세 미진부와 10세 미생은 부자이고, 6세 세종과 11세 하종도 부자이며, 7세 설원과 16세 보종도 부자이다. 또한 13세 용춘과 18세 춘추도 부자이고, 17세 엄장과 25세 춘장도 부자이며, 26세 진공과 32세 신공도 부자이다. 그리고 27세 흠돌과 31세 흠연이 부자이며, 15세 유신과 19세 흠순은 형제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UCKOO

모두가 기다려온 쇼핑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sale

기간 | 10.28.2022 - 11.28.2022 조건 | 기간 내 주문 & 11월 내 설치

최대 ~ 50%

쿠쿠제품 바로 보러가기!



- 공기청정기, 비데, 버블클렌저 2/4/6/8대째 구매 시 50% 할인
- 복수 구매/계약 고객 대상 LED마스크 50% 특별 할인
- 전 제품 일시불 구매 시 10% 즉시 할인



안마의자 구매 시
최대 \$2,000 할인



안마의자 렌탈 시
다운페이 \$500 면제



펫드라이롱 구매 시
\$300 할인

* 수량별 푸짐한 사은품까지! *

\$590 상당

3대 렌탈/구매 시
쿠쿠 IH 압력밥솥 증정

*프리미엄 제품 1대 포함 필수
CRP-IH5R009F | 6인용

\$260 상당

2대 렌탈/구매 시
쿠쿠 압력밥솥 증정

CRP-RT0509FW | 6인용

\$150 상당

1대 렌탈/구매 시
쿠쿠 제빵기 증정

CEM-AAB1015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혜택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권령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조기 소진 시 동일 가격대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두통과 밀리톤의 추가 구매의 AV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취지 또는 반품 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프리미엄 제품: 정수기 MN, 모델의 전자밥 | 공기 청정기 D, F 모델
LED 마스크 프리미엄
•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제빵기
• 수량별 사은품 계약 제외 제품: 보트레이저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BTS, 예상 뒤엎고 그래미 3개 부문 후보로... "역사를 썼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현지시간) 예상을 뒤엎고 제65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깜짝 성과'를 냈다.

가요계에서는 미국 주류 대중음악계가 이제는 방탄소년단을 자국 주요 팝스타와 동일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보인다. 견해가 나온다.

다만 실제 수상 가능성을 두고는 기대와 신중론이 엇갈린다.

가요계가 후보 지명 결과에 놀란 것은 방탄소년단이 올해 입대라는 대형 이슈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 발매 외에는 별다른 음악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영어 히트곡 '다이내마이트'(Dynamite)와 '버터'(Butter)로도 지난 2년간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 한 개 부문 후보로 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활동 없이도 3개 부문 후보라는 K팝 최초

기록을 쓰면서 간판 슈퍼스타의 위상을 과시했다.

그래미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보 발표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이 후보 지명으로 역사를 만들었다"며 "그들의 글로벌 슈퍼스타 지위를 훨씬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등 주요 미국 시상식을 섭렵한 방탄소년단에게 그래모폰(그래미 트로피)은 일종의 '마지막 과제'였다.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영국 출신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는 이를 돌파할 묘안으로 평가됐다.

콜드플레이는 2008년 히트곡 '비바라비다'(Viva La Vida)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고 '그래미 어워즈'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이후 13년 동안 빌보드 '핫 100' 1위곡을 배출하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반대로 '다이내마이트'를 필두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에 이르기까지 '핫 100' 1위곡을 잇따라

내며 막강한 '팬덤 화력'을 자랑했지만, '그래미 어워즈'가 보이그룹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며 '환상의 호흡'을 빚어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콜드플레이라는 세계적인 밴드와 콜라보레이션(협업) 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이 다른 팝스타와 대등한 자리에 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후보 지명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을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로 올려준 '옛 투 컴'에는 '상남자'·'봄날' 등 과거 발표곡을 상징하는 소품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9년의 궤적을 정리한다는 '프루프' 음반의 서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와 영상미는 한국어 뮤직비디오라는 한계에도 '그래미 어워즈' 1차 심사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2021년 제 63회

-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 다이내마이트(Dynamite)

2022년 제 64회

-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 버터(Butter)

2023년 제 65회

K팝 최초 3년 연속 3개 부문 후보 지명

-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 옛 투 컴(Yet To Come)
- [제너럴 필즈] 앨범 오브 더 이어 후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콜드플레이 9집에 '마이 유니버스' 참여로 후보 인정 콜드플레이 수상 시 BTS 동시 수상 및 RM, 슈가, 제이홉 송라이터로 기록 등재
- 시상식: 2023년 2월 5일(현지시간)

11월 20일 - 11월 2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행운이 기대되는

● 운수: 행운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는 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서 황금을 만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사랑의 여신이 함께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소띠 |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여

●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새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 금전: 금전용통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 관계는 더 좋아지고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0,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범띠 |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야

● 운수: 집중하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보다더는 잠시 멈춰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재운은 매일매일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주말쯤에나 가사야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힘을 빌려주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2, 25일 길일. 21, 24일 주의.

토끼띠 | 좋은 에너지를 받는

● 운수: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게 되고 좋은 에너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거나 파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애정: 상대를 위해서 원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해주세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6일 길일. 23, 25일 주의.

용띠 | 넓고 큰마음으로

● 운수: 지나친 근심 걱정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심신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힘든 과정이 지난 뒤에 행운이 따르는 운세로 회복의 기쁨이 마련되겠습니다. 떨어졌던 신용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애정: 옛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상에 젖은 추억으로 마음만 실랑실랑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3일 길일. 20, 26일 주의.

뱀띠 | 책임을 다하도록

● 운수: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내게 온 복을 밀어내는 격이 됩니다. ● 금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실망하거나 헛수고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5일 길일. 21, 24일 주의.

말띠 |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내주정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평화를 찾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양띠 | 능력이 돋보이고

● 운수: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이 돋보일 것입니다. ● 금전: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되고 마음이 통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원숭이띠 |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 운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이니 답답해도 묵묵부답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알게 됩니다. ● 금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닭띠 | 대화로써 풀어야

● 운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말 많은 사람은 실행력이 떨어진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지니 자기 것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세요. ● 애정: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대화로써 풀어야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6일 길일. 13, 19일 주의.

개띠 |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 운수: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이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원가를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돼지띠 |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 운수: 지금껏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일에 있어서 행운이 따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도 성사되겠습니다. ● 금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현명한 판단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생깁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셰프 및 키친 스태프
Tel. 617-308-4742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시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형사록' 이성민 "새 인물 나올 때마다 의심스러운 점이 묘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어떤 배역이든 제 옷을 입은 것처럼 소화해내는 '연기파' 배우 이성민이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형사록'에서 거칠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관록의 형사로 다시 한번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

'엘메이드' 수사물로 호평받고 있는 '형사록'의 주연 이성민과 조연 이학주를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난달 26일부터 순차 공개되고 있는 '형사록'은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동료로 죽인 살인 혐의를 받게 된 형사 태록이 정체불명의 박범을 잡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쫓는 이야기다.

이성민은 태록으로 분해 자신을 '친구'라고 밝힌 협박범 친구와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가며 극을 이끌었다. 태록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 형사로 동물적인 수사 감각을 지닌 인물이다.

이성민은 "태록은 형사에 천부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본능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기억력이 좋고 예리하다. 그러면서 인간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록은 결벽에 가까우리만큼 자기 사건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이 태록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성민은 처음에는 태록 캐릭터가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열정 넘치는 열혈 형사도 아닌, 그렇다고 의욕이 완전히 꺾인 뒷방 늙은이도 아닌 애매모호한 포지션이어서 캐릭터 설정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

이성민은 "'형사록'의 원래 제목이 '늙은 형사'였다"며 "'늙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됐다. 영화 '리멤버'처럼 아예 할아버지 역이면 편한데, 지금 내 나



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이면서 관록은 있어야 하니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형사라는 직업보다는 극의 흐름 속에서 태록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는 데 더 집중했다"며 "공황장애가 있는 인물 연기는 처음이어서 제작진이 준 자료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극이 전개되면서 태록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범인을 잡는 데 급급해서 놓쳤던 또 다른 피해자의 호소, 빠른 수사를 위해 태웠던 편법 등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처음 작품을 봤을 때 나이 많은 형사가 자신의 과거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태록은 '친구'가 건드린 자신의 과거 잘못들을 들여다보며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점이 태록의 매력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성민은 '형사록'은 협박범인 친구의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모두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이 드라마의 큰 매력이라고 했다.

이성민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친구'가 아닐지 용의선상에 올라

간다"며 "배우들 모두 '내가 범인일 수도 있어'라면서 연기한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묘미다. 태록조차도 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친구'로 의심받는 인물 중 한 명이 이학주가 연기한 태록의 후배 형사인 송경찬이다. 송경찬은 태록을 존경해 함께 일하기 위해 서울에서 금오경찰서로 내려온 인물이다.

이학주는 "'친구'로 혼동할 수 있도록 의심을 받아야 하는 역할이어서 1회부터 조금씩 다른 인물들이 의심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연기를 했다"며 "(금오경찰서) 서장에게 지령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친구로 헛갈려 보이도록 녹여내려 했다"고 말했다.

이성민과 이학주는 무엇보다도 '형사록'의 몰입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성민은 "이야기가 밀도있고 탱탱하다"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들이 생기면서 이제 과거 50~70분에 달하던 (시청) 시간이 줄었고 사건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다 보니 몰입감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JYP 박진영, 21일 신곡 '그루브 백' 발표...개코 피처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박진영이 오는 21일 오후 6시 신곡 '그루브 백'(Groove Back)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14일 밝혔다.

박진영이 신곡을 내놓는 것은 2000년 8월 원더걸스 출신 선미와 호흡을 맞춘 '웬 위 디스코'(When We Disco)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그루브 백'은 제목처럼 무더진 그루브 본능을 깨운다는 의미를 담은 신나는 댄스곡이다. 당초 스포츠 댄스 챌린지용 노래였지만 성원에 힘입어 완곡으로 빛을 보게 됐다. 노래는 다이 나믹듀오의 개코가 피처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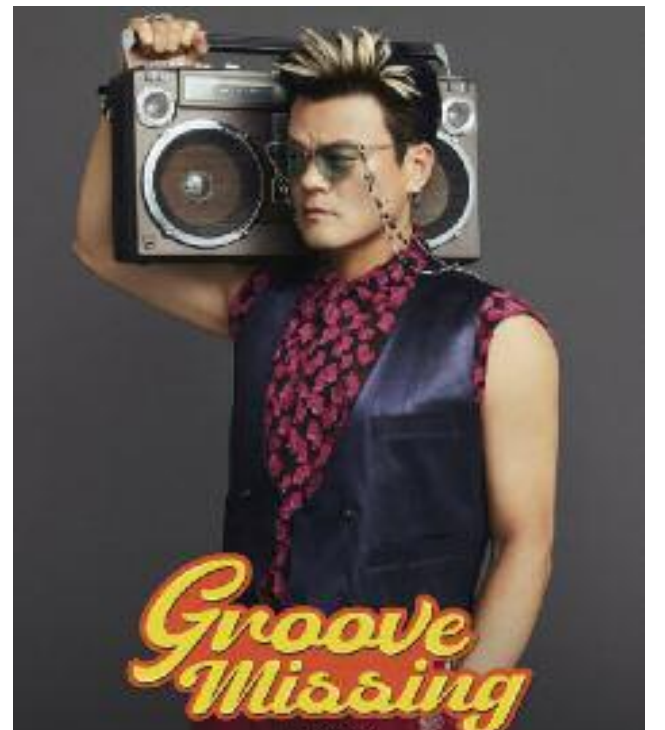
참여했다.

박진영은 앞서 지난달 서울 남산을 시작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국 방콕,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루브 백' 챌린지를 펼친 바 있다.

이 챌린지에는 슈퍼주니어 신동, 원더걸스 출신 선미, 유튜브 고퇴경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했다.

박진영은 신곡 발매 3일 전인 18일 오후 6시 '그루브 백'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이색 행보를 펼친다. 또 다음 달 22~25일 나홀로 연말 단독 콘서트도 열고 오랜만에 팬들을 만난다.

tsl@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6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생은 신명나는 춤 한 판!!

삶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는 모두가 다르다. 어느 부모를 두고 있으며 어떻게 자랐는가에 따라서도 확연히 다르다.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았든 간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그 부모 아래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또한, 자란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바탕이 되는지 살면서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 전부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든 간에 성인이 되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자식을 키울 때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보다는 주변의 아이들과 경쟁을 하듯이 저 집 아이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던가. 학교 공부도 그랬거니와 한국 학교를 보내면서도 단어 하나 더 외워서 상을 타와야 직성이 풀리고 글짓기 대회에서도 상을 타와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또한, 수학경시대회에 보내서도 기다리는 내내 내 자식이 성적이 좋아 상을 타길 간절히 원하고 상을 타면 웃음이고 못 타면 우

울인 마음이었다.

인생은 신명나는 춤 한 판

- 굶餓이
- 그 시절
- 모두가 걸지작 거리던
- 넘지 못할 장애물투성이
- 굶살대던 애벌레
- 제 속을 빼내
- 고치 집을 짓고
- 홀로 도(道)를 닦더니
- 세상 밖
- 그안의 또 하나의 세상
- 견뎌 배우고
- 기다림을 배운 지혜의 성
- 애벌레의 외로움
- 고치 집을 짓더니
- 고독을 깨우친 애벌레
- 나비가 되어
- 모두가 장애물이던 세상
- 모두가 놀이터로 변했네
- 인생은 하늘 아래의
- 신명나는 춤 한 판

세 아이를 모두 키워놓고 그 지난 시간을 되

돌아보면 참으로 오묘한 웃음이 지난다. 왜 그리 그토록 극성스러운 엄마로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엄마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집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모두 자신의 아이가 최고이길 바라던 어머니의 그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것은 각자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를 경쟁시키기보다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자식에게까지 가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 자신을 보더라도 주변의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을 보면 자라온 가정환경과 교육 환경이 모두 다르지 않던가. 이런저런 삶의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간에 모두가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색깔과 모양에서 어떤 소리를 내며 살 것인가.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경쟁의 마음으로 삶의 시간을 갈아내며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본인의 선택일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어느 누군가의 어떤 색깔과 모양의 이름일지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열심과 성실의 결과라는 생각을 한다. 큰 박수로 응원하고 싶다.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체면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해 살아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지 않겠는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의 여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맡겨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말이다.

길지만 짧은 짧지만 긴 인생 여정에서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길 바란다. 그것이 부부가 되었던 자식과 부모가 되었던 간에 서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박하지 않기를 집착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며 살아야겠다. 처음은 늘 쉽지 않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뚫어야겠다. 그렇게 그 작은 구멍이 커져 시원한 바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남을 위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나로 내 발걸음부터 한 발짝씩 띄어 옮겨 봐야겠다. 이처럼 인생은 신명나는 춤 한 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착한 거짓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주 시인이다.

-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 (안개가 짙은들, 나태주)

다른 것도 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걸 새빨간 거짓말일까. 한술 더 뜨다. 충고도 조언도 아닌 말을 마치면, 한마디 덧붙인다. 밥 한번 같이 먹자. 이 역시 허언이 되기

십상이다. 하긴 사람들은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거짓이나 과장 일망정, 새하얀 거짓을 좋아한다는 말일게다.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이야 말해 무엇하랴. 거짓말은 아닐테지만, 허풍이고 부풀리기일 수는 있을게다. 공약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다 하던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자주 애용한다던가. 떠도는 풍문에 의지한다고도 했다. 미국에서도 중간선거를 치렀다. 미국 정치인들도 공약空約을 내세우는가? 카터라 라는 말이 있다. 근거는 없고 소문을 사실처럼 전하는 말이란단. 추측성 억측일테니 신빙성이 없는 정보라는 거다. 왕년에

주간지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들 일터. 나역시 한국군대 졸업시절에 주간지 연예 기사를 읽고는 했다. 주간한국이었는데, 이역시 언론이라면 언론일 수도 있겠다. 역시 카터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게다. 내 모교의 학보 이름이다. 00춘추. 춘추필법에서 따왔을 텐데,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언론의 정신이라 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직필直筆이라는 말일게다. 고행성사에서 거짓이 있을까. 착한 거짓말인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사도행전 6:13)

거짓말에도 종류가 다양하다. 해명성 거짓말도 있을 터이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핑크빛 거짓말도 있다 하던가. 할머니의 거짓말도 있다. 밥 한 그릇을 놓고 어린 손자에게 먹일 마음이다. 미안한 마음에 손자가 묻는다. '할머니는 안드세요.' 할머니 대답이다. '난 먹고 싶지

않다. 조금전에 한술 떴다.' 거짓말인줄 안다면 이런건 착한 거짓말이라 해야 할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 기상청 일기예보는 이따끔 맞지 않는다. 일부러 그럴리아 없다만, 자주 오보誤報가 나오는 거다. 이런것까지 거짓이라 할수는 없을게다. 읽었던 시 한편이다. 나태



MassDREAMS Grant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분들에게
주택구입시 계약금 및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입니다.

*First-time Home Buyer(첫 주택 구입자)는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50,000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MassHousing에서 최대 \$50,000까지 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융자에 대한 실직 보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적어도 한 명의 신청자는 COVID-19에 의해 불균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커뮤니티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모든 적격 차용인은 First-Time Home Buyer(첫 주택 구입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주 거주자로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No Repayment Required

보조금은 계약금에 사용 할 수 있고 추가 자금은 클로징 관련 비용, single borrower-paid mortgage insurance premiums 및 이자율 상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ties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COVID-19:**

Attleboro	Fitchburg	Lynn	Randolph
Barnstable	Framingham	Malden	Revere
Boston	Haverhill	Methuen	Salem
Brockton	Holyoke	New Bedford	Springfield
Chelsea	Lawrence	Peabody	Taunton
Chicopee	Leominster	Pittsfield	Westfield
Everett	Lowell	Quincy	Worcester
Fall River			

Contact me today to see if you qualify

NOTE: Potential homebuyer must be pre-qualified for assistance through www.mymasshome.org before applying to MassHousing. www.emasshousing.com



Michael Lee
LOAN OFFICER
 NMLS#: 1464242
 cell: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 lo.movement.com/mike-mle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 | www.movement.com



MA-ML01464242, NH, RI | Movement Mortgage LLC. All rights reserved. NMLS ID #39179 (For licensing information, go to: www.nmlsconsumeraccess.org). Additional information available at movement.com/legal. Interest rates and product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nd may or may not be available at the time of loan commitment or lock-in. Borrowers must qualify at closing for all benefits.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령자·여성 잦은 어지럼증,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박 지현 진료부원장의 도움을 받아 고령자와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겪어봤을 흔한 증상이다. 이 때문에 무심코 넘어가거나 빈혈 또는 영양 결핍으로 오해해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일시적 증상부터 뇌졸중까지 다양할 수 있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전정계, 시각, 체성감각, 뇌신경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며 이 중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흔히 알려진 잘못된 상식처럼 어지러움을 느끼면 빈혈을 의심하곤 하지만, 빈혈로 어지러운 경우는 거의 없다. 원인은 어지럼증의 양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갑자기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은 이석증이다. 이석증은 속귀에 있는 전정기관에 얽혀 있는 미세한 돌인 이석이

떨어져 나와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반고리관을 자극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2018년 기준 이석증 진료인원 중 여성은 26만명으로 남성의 2.4배 이상이었다.

전정신경의 염증에 의한 전정신경염, 속귀의 압력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메니에르병도 있다.

메니에르병은 회전감 있는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이명, 이충만감 등 증상이 갑자기 발생했다가 호전되길 반복한다.

심한 어지럼증은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전조증상이기도 한다. 뇌졸중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어지럼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뇌간 뇌졸중인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잘 나타나며 다른 신경학적 증세를 동반한다.

다만 어지럼증이 빙빙 도는 현훈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호전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 어지럼증으로 진행된다. 이는 견딜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균형장애를 일으켜 급성 현훈증만큼 일상에 영향을 준다. 특히 노년기에는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 어지럼증이 매우 흔하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후 치료해야 한다. 휴람의

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현 진료부원장은 “어지럼증은 인구의 30%가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원인을 자가진단하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며 “평소 겪은 어지럼증의 증상을 체크하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어지럼증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노년층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앞선 통계에서 보듯 어지럼증은 남녀 모두 8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근력과 균형 감각이 둔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균형감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노년층이 흔히 겪는 관절염 등은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반복적인 어지럼증은 심각한 불안장애를 야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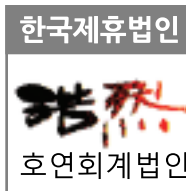
박 부원장은 “이석증은 6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고령으로 갈수록 더 흔하다” 며 “노년환자들은 균형 감각이 약해져 있어 치료가 늦어지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증, 전정편두통, 심인성 어지럼증이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에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하기 때문” 이라며 “노년기로 갈수록 어지럼증은 더 흔하고, 전정 편두통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고 덧붙였다.

“고령자·여성 잦은 어지럼증, 방심해선 안 되는 이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5세 이상 모든 분을 위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252nd Beethoven[^] Birthday B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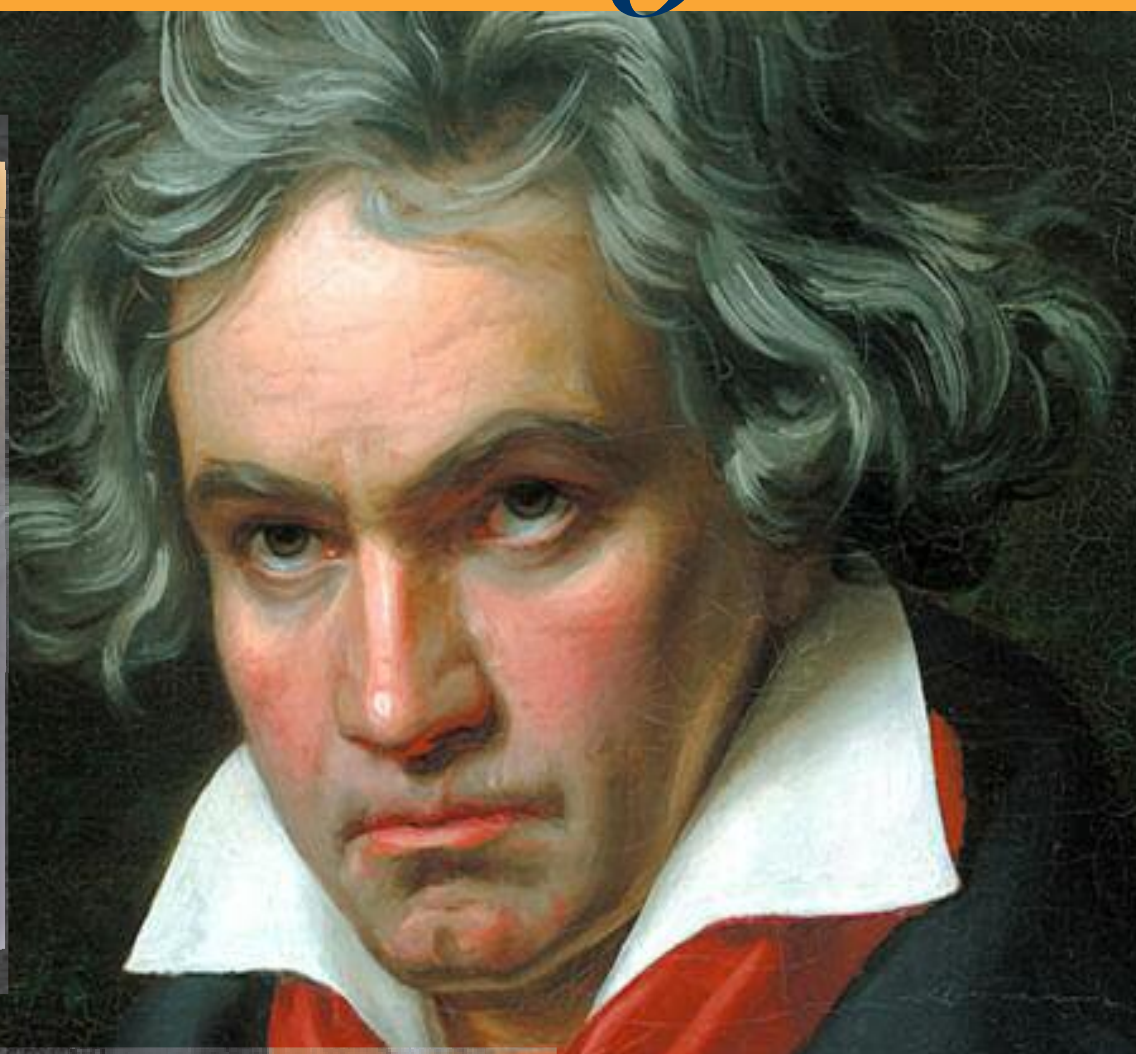
PROGRAM

All-Beethoven

Trio op. 1 No. 1
in E-flat

Piano Sonata op. 81a
in E-flat ("Les Adieux")

Trio op. 97 in B-flat
("Archduke")



Bo Youp Hwang
violin



Owen Young
cello



Jerome Rosen
piano

Sunday, December 11, 2022 at 3 PM

First Church in Boston • 66 Marlborough St, Boston

Donation suggested: \$15 • Tel. 781-874-0861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